

**동우컴퍼니**

십자가 붙이기 운동

“장로님, 회사가 어렵다면서요? 회사 간판에 십자가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십자가 붙이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 운동의 취지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 회사 앞에, 내 사무실 앞에, 내 문 앞에 붙이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자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누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 말씀대로 하나님도 저를 만인 앞에서 시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에 이 운동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편협하다고 한다. 성경은 이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하셨으니 어쩌랴.

그렇다고 사람의 눈치를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10:33)라고도 하셨다. ‘부인하다’의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다, 창피하게 여기다’라는 뜻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느냐? 아니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우리 대답 여하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부끄러워 하시기도 할 것이다.

‘십자가 붙이기 운동’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 운동을 함께 전개해보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
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
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원4:15).

다시 한번 우리 현대사의 한 단락이 매듭
지어졌다. 계엄과 탄핵으로 계속되던 정
국의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번 21
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리되고, 새정부
가 들어섰다. 큰 혼란 없이 마무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는 국가와 민
족을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
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이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 우리도 각자
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목사님께서도 지난 수요일에 배에 말끔히
정리해주셨다. 그리고 항상 목사님이 강

입다 또한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가 대승을 거두지만, 서원 내용이 승리 후 돌아올 때 집문 앞에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었는데, 하필 처음 맞이한 자가 사랑하는 무남독녀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입다나 그 딸이나 깨끗하게 서원을 갚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온다(삿 11:29~40). 결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무게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
을 끊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택함
에 있어 요셉과 맛디아라는 두 사람이 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 따라서 이제는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 성장 발전하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이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강을 건넌다면 건너는 데 사용되었던 뗏목은 불살라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당장 우리 앞에는 멕시코(Mexico) 마따모로스(Matamoros)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무엇보다 날씨를 위해 합심기도를 부탁 드린다.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야외집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제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조하시는 말씀도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미래는 약속어음이고, 현재만이 현찰이니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불살라 버리고 미래를 향해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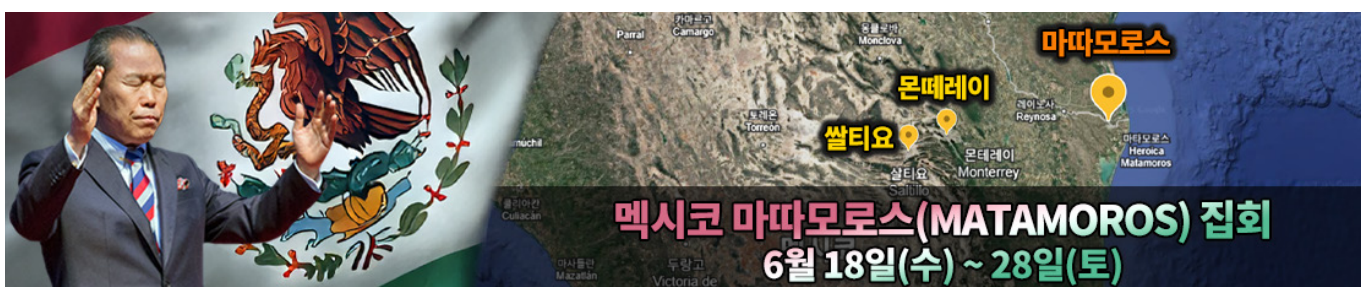
성경에 보면 다윗도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복들이 옆에서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더불어 먹지도 앓터니만, 막상 그 아들이 죽고 나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감사하며, 신복들이 의아할 정도로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삼하12:15~23). 이미 하나님의 처결이 난 일에 대해 깨끗이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가 멋있다.

거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맞디아로 결정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다(행1:21~26). 사안의 결정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든, 투표를 통하든, 이는 결정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를 차단하고, 또한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목사님께서 이런 경우에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딤후2:1~2). 어떤 절차를 통해서건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도

회로 진행되니 날씨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멕시코를 다녀오면 청소년연합 수련회와 여름성경캠프, 그리고 하계산상집회가 이어진다. 9월에는 엘살바도르(EI Salvador) 집회, 10월에는 군산 집회와 기도성회, 11월에는 멕시코 가르시아(Garcia) 집회, 이어서 추계산상집회 등이 계속 이어진다. 심지어 내년까지 해외 집회 일정이 짝 차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서울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계속 기도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6:17)

남의 일에 간섭 말고 내 일에 충실하라

“남의 일에 간섭 말고 내 일에 충실하여 열매로 말하자.”

제가 쓴 잠언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오래전, 기도원 집회 기간에 어느 장로 부부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하여 옥신각신하다 시ết말로 열을 받아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일을 당합니까? 남이 싸놓은 똥에 왜 주저앉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성도의 가정사, 특히 부부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괜히 참견하다가 나중에 큰코다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벧전4:15).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5:22)고 경고했으며, 잠언에도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잠26:17)며 남의 일에 간섭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예수님도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 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더러 자기 형에게 자기에게도 유업을 나누어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눅12:14)라고 말씀하시며, 남의 일에 확실히 선을 그셨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라

남의 일 참견할 것 없습니다. 자기 일이나 충실히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과 삼시에, 그리고 육시와 구시, 심지어 십일시에 들어와 일한 사람조차도 일을 마친 후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 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자가 “재들은 늦게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같은 돈을 주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고, 주었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저 사람의 품삷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너는 남

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베드로가 가게 될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게 이르노니 젊어서
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
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로
다
냈
거
니
와
늘
어
서
는
네
팔
을
벌
리
니
남
이
네
게
떠
떠
우고
원
치
아
니
하
는
곳
으
로
데
려
가
리
라”

(요21:18). 베드로가 순교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21:22) 이 말인즉 ‘다른 사람 일에 쓸데없이 관심 갖지 말고 네게 주어진 일이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내 일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 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행1:6).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1:7).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소관이니 상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하신 것입니다. ‘네 일’,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들을 보면 대체로 할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남의 집 기웃거리며 괜한 참견하는 겁니다. 돈을 대줄 것도 아니고, 나서서 일을 처리해줄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남의 참견 말고 네 발등의 불이나 꺼라’, ‘네 앞도 못 닦는

것이 남의 걱정은 왜 하나’,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마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집 석 가래 는

씩
어
물
이
줄
줄
새
는데,
남의
집
에
와
서
이
러
쿵
저
러
쿵
하
고
있
으
니
한
심
하
다
는
말
입
니
다.
데
살
로
니
가
교
회
에
도
그
런
자
가
있
었
나
보
입니다. 자기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참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강경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살후3:11~12).

남의 일에 참견하여 일 만들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3:14)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왜냐? 자고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는 말씀대로, 그런 자와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닳기 때문입니다. 닳은꼴은 시간과 정비례하거든요.

“그렇다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2:4)는 말씀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는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고 공감하며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권 참견이 아니라 사랑이요, 나눔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동지침인 것입니다.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나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

여러분, 제가 쓴 잠언 하나 더 소개합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 침묵하며 자기 일에 충실한 자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뜻대만 바라보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목적의식,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경주마들의 눈 양쪽 옆을 가려놓지 않습니까? 이는 경주마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적을 향하여 경주마처럼 달려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보고, 다 참견하고 어느 세월에 달려간단니까? 저야말로 경주마처럼 목표만 바라보고 40년을 달렸습니다. 저는 늘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썬다쌍의 말을 염두에 두고 살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되뇌며 제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세계 70개국에 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족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오늘 말씀은 ‘이웃과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도움을 줄 것도 아니면서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 일을 충실히 해서 열매를 맺어 나도 풍성하고, 남도 풍성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통역관

우크라이나(Ukraine) 드네프로예수중심 교회 담임이자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 시역에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활약하시던 슬라바(Slava) 목사님이 소천하신지도 8개월이 지났다. 그분의 부재가 우리 교단의 세계선교전략에 큰 손실임을 느낀다. 러시아 권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했던 브리지가 무너진 셈이니 말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불가능하긴 했지만, 러시아권 선교에 장애가 발생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처음 그분을 만나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두른 기억이 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나 너무나 유창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해내는 모습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오로지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만 보고 한국말을 배웠다니 더욱 놀랄 수밖에. 그분과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Russia),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 벨라루스(Belarus), 독일(Germany) 등 유럽 국가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 등의 중앙아시아, 그리고 미국(USA) 이턴 러시아들(새크라멘토 Sacramento, 밴쿠버 Vancouver)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면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에 선하다.

그러니 남미선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현숙 선교사가 그리 소중할 수가 없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다. “우리 현숙이 없으면 우리 이곳에 올 일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루트가 없으면, 아니 아예 광고조차 할 수 없으면 팔짱 도루묵 아닌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슬라바 목사님이 안 계시니 통역관이란 소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다.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할지 바로 이해가 되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메시지와 기사와 표적을 통해 완벽하게 통역해내는 목사님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끄찍이 귀하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역관으로 세워진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소임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역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을 통해서건, 글을 통해서건, 영상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서건, 각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야 하는 통역관들인 것이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나아가 역량 있게 해낸다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뿐아니라 더욱 귀히 쓰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최소한 결립들은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자!

Henry Han

:: 신앙논객 ::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선거였고, 기간도 짧았기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정치인들의 속내가 많이 드러난 선거였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당적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세력을 바꾼 이들이었다. 그중에는 소위 말해 줄을 잘 바껴 서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당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에 쏘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사람들도 있다. 어찌 됐든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난무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정치판을 이번만큼 잘 보여준 선거가 있을까 싶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돈계를 맡은 자였다. 재정을 아무한테나 맡기겠는가? 12제자 중에서도 꼼꼼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골라서 맡기셨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마케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요13:2),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 만찬 자리에서 그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넘겼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본 그는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배 창자가 터져 죽었다.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셨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목회자로 사역하면 할수록 변질되지 않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낀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지만,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가. 신학교에서 중세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교황과 수도사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변질의 역사가 결코 옛날얘기가 아니라 거울처럼 가깝게 보인다.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머물렀던 자리에 똥을 싸놓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사람들이 일개 전도사인 내 주변에도 있는데, 총회장 목사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우셨을까.

시작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지만, 끝은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 줘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머문 자리에 그리움이라는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자.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신혁주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주교에서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이 영적 갑갑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회와 목사들을 만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초석 목사에게 가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로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목사님은 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용서를 통해 화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전국의 주의 종들에게 지시하시어 시험이 들거나 떠난 성도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더니, 집회 당일 에 오던 비를 멈추시는 기적을 시작으로 단일교회로는 십만의 최대인파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삼

손은 들릴라의 말을 듣다가 머리카락이 잘려 눈알이 빠지고 연자뿔들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변화하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며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였다(행4:19~20).

천지 만물도 들을 귀가 있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건만(마8:23~27),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55:2~3).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닭은꿀

어느 지교회에 봉사하러 갔다가 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두 분 모녀시지요?” 물었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길래, 두 분이 너무 많이 닭으셨다고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따님이신 권사님이 본인은 평생 엄마를 닭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어머니 권사님 면전에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내가 이런 좋은 점을 엄마를 닭았고, 엄마 닭아서 이런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이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겠냐고 말해줬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점을 나를 닭아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님께 더 큰 효도가 없다. 내 얘기를 들으시던 팔십 대 어머니 권사님께서서는 환하게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내가 최고로 기분 좋은 말을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 매년 기도원 집회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시는 미국의 권사님께서 나를 두 번째 만나던 해에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 초석 목사님 제자 중에 목사님 같은 분

이 계신 줄 몰랐다’는 얘기였다. 과분한 칭찬이고 아니고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었다. ‘너무 닭았다’는 권사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일생일대 최대의 칭찬이었기 때문이다. 제자에게 스승을 닭았다는 말보다 기본 좋은 말이 있을까. 또 스승에게는 제자가 스승을 닭았다는 말보다 기쁜 말이 있을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닭았다는 말보다 더 큰 칭찬과 축복의 말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나를 닭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그리고 ‘닭은꿀은 시간과 정비례한다’고도 말씀하신다.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닭았네’ 하는 아이들 동요의 가사처럼,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가 아닌가. 용장 밑에 약졸이 있을 수 없다. 날마다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과 지혜를 닭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레 11:45),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

장순천 목사

2070년까지 ‘슈퍼맨’이실 총회장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진짜 사랑 하는 별이입니다.

목사님, 우선 이렇게 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은혜를 잃지 말라’ 하셨는데, 목사님께 흐르는 물뿐 아니라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기에 꼭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아빠가 아프시고 제 지난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4명인데, 그중 3명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으로 죽는다면 아이였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억상실증으로 하신 말을 되하고 되할 때, 목사님께서 호주집회 중이셨는데도 전화로 기도해주셔서 깨끗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대신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엄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그 순간 눈앞이 깜깜했는데, 저 머나먼 반구를 지나 걸려온 목사님의 기도가 엄마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아빠도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뇌경색에 뇌출혈..., 골든타임도 훌쩍 지나 병원을 찾았는데도 그 어떤 후유장애 없이 온전한 몸으로 스스로 걸어 되원하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처음 아팠던 날 밤,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신 그 순간에

아빠의 터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 피를 막은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터진 혈관이 작은 혈관이 아닌데 목사님의 사랑하는 장로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 삶에 제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했던 요셉, 다윗, 그리고 먼저 앞서가고 계신 목사님의 삶을 살펴보니 도무지 사람의 시선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제 삶에 신실하게 선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아빠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더 진실되고 깨끗한 자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할 때 이 땅에서 재산 같은 것 물려주지 않아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씨가 와서 엄마, 아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께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신 분이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여자라고 생각이 짧고, 못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갖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종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먼저 깨끗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먼저 진실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양면을 다 갖추신 목사님께서 저의 목자로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고 배우는 만큼 힘써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외식이나 가정예배 드릴 때 꼭 하는 대표기도가 있는데요. “믿음의 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서서 목사님의 사역을 힘써 도울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70년까지 20대의 기력으로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옆에서 그대로 만들어 드린대요!

2025. 6. 3 김별 생도 올림

:: 영생에 이르는 길 ::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오늘은 이 지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완전하심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작년 7월, 하나님과 목사님,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한 후 적지 않은 나이에 바로 자녀 계획을 기도로 준비하며 저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길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셨고,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을 아이라는 뜻의 태명인 ‘전복이’를 품에 품은 지 이제 17주 차에 접어들니다. 기도로 응답받은 아이였고, 온 가족의 기도로 커가는 아이였기에 태중의 아이에게 행하는 1차 기형아 검사도 감사함으로 모두 정상으로 판명받았고, 16주 차에 2차 기형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보통 아이와 산모에게 별 이상이 없는 경우 문자를 통하여 대부분의 안내를 진행하는데,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 결과와 2차 기형아 검사 결과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당연히 ‘정상’으로 판명받을 줄 알았던 아이의 검사 결과가 너무 좋지 않게 나왔으며 오늘이라도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으라는 이야

기였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1:33, 다운 증후군 1:6으로 정상범위인 1:150, 1:495에서 한참 벗어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니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들이 넘쳐나고 아이를 잃게 되면 어찌지 하는 불안까지 엄습해왔습니다. 이리다 더욱 이상한 생각에 큰일 나겠다 싶어 총회장 목사님께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고, 통화 중에 “다 허상이야. 걱정하지 마. 아이는 정상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귀신을 쫓아주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자궁에 바늘을 꽂아 양수를 채취하여 시행하는 양수 검사를 바로 시행하였고, 결과 도출까지는 3~4일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도, 엄마도, 시어머니도 모두 입을 모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정상일 거야. 우리가 기도하잖아.”라고 제게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엔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담담한 척하며 지내다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며 어린아이처럼 영영 울기만 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아이로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불안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점차 인간적인 생각은 걷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억겁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모두 정상이며,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흠이 없고,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주십니다.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려 가족 모두를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김경현

방언기도

해외출장으로 장시간 비행 후 지친 상태로 호텔 숙소에 도착하였다. 체크인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도착한 관계로 방이 없어 기다려야 한다는 호텔 직원의 말에 힘이 빠졌다. 바로 로비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방언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보니 다른 여행객들도 같은 상황이었다. 30분 간절히 기도 후 용기내어 다시 데스크로 갔다. 혹시 방이 나왔는지 묻자 호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여전히 방이 없네요.” 말하던 찰나, “어라? 잠시만요, 갑자기 방이 하나가 났네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달아 맘속으로 외치며 바로 숙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신기한 일은 귀국행 비행기에서도 일어났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인데 좌석이 가운데 세 줄에서도 중간 자리밖에 없었다. 양옆 모르는 사람 사이 불편하게 장시간을 비행하려니 염려가 되었다. 출장 온 날부터 계속 수시로 방언기도를 했지만, 거의 만석 상태라 복도 자리는 나오지 않았다. 전날 밤 항공사에서 갑자기 비행기 출발시간이 1시간 지연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에이, 왜 지연되냐-’ 하고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탑소사! 호텔 체크인아웃 시간도 지나있고,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이었다. 허겁지겁 일어나 체크인아웃을 하는데 호텔 직원이 “체크아웃이 늦어서 추가 요금을 내셔야겠어요.” 한다. 방언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어? 다 처리되었네요. 그냥 가져도 됩니다.” 하는 것 아닌가. ‘오 하나님!’ 부랴부랴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왔다. 또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맘속으로 외치며 비행기 자리에 앉자 옆자리 사람이 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한쪽 사람은 자리에 없었다. 비행기 탑승문이 닫히자 옆 사람이, “옆에 자리 비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앉기 전에 얼른 앉으세요.” 하여 짹째 옆으로 옮겼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지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준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방언기도의 위력.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같은 비행기를 탄 거래처 외국인 직원이 내게 얘기한다. “당신을 위해서 비행기가 지연되었나 보네요!”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